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에 푸른 바다가 보이는 동해를 찾았다. 눈이 시리도록 시퍼런 바다는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했다. 바다가 먼 곳에 사는 이는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겨울 바다를 보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

영하로 내려간 날씨에 파도는 바다를 살아 숨 쉬게 한다. 넘실대는 파도를 보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 것은 욕심이다. 동쪽 바다 끝쪽에서 시린 날씨에 여행 온 청춘을 바라본다. 짧은 치마에 롱부츠를 신은 모습 이 발랄하다.

호미곳 시퍼런 바다에 모든 설움을 버리고 감사한 것들만 가지고 돌아서는 걸음이 가볍다. 여행이 주는 기쁨이다. 바다의 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찾은 곳은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카페였다.

카페는 여행자에게는 휴식의 장소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이겨내는

차 한잔은 잠시나마 지친 여행에서 안식의 시간을 주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은 푸른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주변을 살펴보니 사실주의 작품을 남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 생각나는 풍경이다.

현대인의 외로움 고독한 장면의 그림을 남긴 호퍼의 그림은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 책 한 권이 놓여 있거나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외로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홀로 여행을 떠난 이에게 만나는 외로운 등대는 친구다. 바다와 파도 사이에 경계에 선 이방인이 되어 지평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카페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는 연인들을 바라본다. MZ세대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과 담백한 빵 한 개를 고른다. 하오 네시쯤이면 단맛이 그리워지는 시간이다.

매설게 부는 바람을 보면 바다에 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껴본다. 진

미친 듯, 푸른 바다를 안았다

한 커피 향을 느끼며 더 진한 바닷바람을 만나본다.

한잔의 커피는 여행자를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들게 한다. 이것이 바로 여행이 주는 매력이 아니던가?

어둠이 내려앉은 질푸른 바다를 보며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L이 있다. 긍정의 아이러니다.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L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순환시켰다. L를 생각하면서 푸른 바다를 안았다.

동해 끝에 있는 카페에 앉아 일렉 드보통의 '여행의 기술' 책을 펼쳐 들었다. 정독이 되지 않아 몇 자 읽다 덮어버려도 생각나는 문구가 있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춰서서 일수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어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바로 이것이 여행의 효과인지도 모른다.

시퍼런 바다를 만났을 때, 여행을 통해 무엇인가를 찾거나 얻으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푸른 바다를 안았을 때 어느덧 커다란 바다에서 내려놓게 된다. 바로 여행을 통해서 걸려지는 시간이 우리의 삶을 한층 더 끌어 올리게 되는 것이다.

한해의 막달에 바다를 안았다. 실은 바다가 나를 안은 것일지도 모른다. 일상의 삶에서 낯선 장소에서 많은 생각을 한다. 일상의 삶에서 한번 비켜서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와 다른 나를 찾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여기는 동해의 질푸른 바다, 넘실대는 파도와 하얀 리조트에 있는 카페에서 아기가 된다.

파도에 맞추어 폴짝 뛰며 춤을 추기도 하고, 갈매기와 함께 종종종 걸음을 걸기도 한다. 추운 겨울날

서로를 껴안으며 찬 바람을 이기는 연인에게 손을 흔들어 본다.

동해 호미곳 손이 있다는 곳에서 내 손을 감추고 그 손을 잡아보기도 한다. 바다에 있는 손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바다의 손과 내 손목이 만났을 때 합성을 지른다.

바다의 끝 동해에서 사람을 먼저 반기는 갈매기와 달리기를 했다. 동해에서는 갈매기가 먼저 사람에게 다가온다. 사람이 달리면 갈매기도 달린다. 시퍼런 바람이 내 뺨을 만지고 간다. 바다를 뒤로 두고 바다를 돌아본다. 미친 듯, 푸른 바다를 보았다.

신현림의 시 '바다를 보면 바다를 닮고'의 한 부분이다. '바다를 보면 바다를 닮고/ 나무를 보면 나무를 닮고/ 모두 자신이 바라보는 걸 닮아간다.'

넓은 바다를 보면서 너그러워진다. 시퍼런 겨울 바다와 작별인사를 한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공동주택 화재 초기 옥내소화전 활용하기



양해숙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물론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주저 없이 대피가 먼저다.

옥내소화전 사용 가능의 경우 혼자 보다는 둘이 있을 때가 사용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한 명은 관창노즐을 잡고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나머지 한 명은 소화전 앞에서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잘 풀어 개폐 밸브를 돌려주면 더 빠른 대응이 되기 때문이다.

1인도 물론 가능하다. 옥내소화전 문을 열고 호스를 빼 노즐을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밸브를 돌린 뒤 물을 향해 쏘면 된다.

아무리 쉬워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당황할 수 있다. 더구나 화재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 합인 문 내·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한국어와 외국어(영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

옥내소화전은 분말소화기로 진화할 수 없는 일정 규모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단순한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

사용법도 간단해 화재 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 효용도는 소방차 못지않다.

만약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피하고 119에 신고한다. 화재 초기라면 엘리베이터 앞이나 계단참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해야 하겠다.

용설명서 스티커를 제작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자주 다니는 건물의 옥내소화전 함 위치를

알아야 한다.

더불어 사용법을 숙지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겨울철 한파 대응 방법 숙지



김재혁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를 대비하기 위해 가정 내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은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고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동파 방지를 위해서 가정에 계량기에 수건이나, 담요 등으로 미리 보온 조치를 해놓아야 한다.

미리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한파 예보에 맞추어 등과사고 등 단수에 대비해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놓고 옥조 등 물을 담을 수 있는 곳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혹시나 모를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용 라디오 등 미리 준비해 모든 상황에 대비해 놓아야 한다.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밖에서 활동해야 할 상황이면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한파 발생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한파가 예보될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노약자분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야외활동 후 심한 한기, 기역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특히, 빙판길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이니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항상 주의의를 기울이며 걸어야 한다.

동상에 걸렸을 경우 비비지 말고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고 온도를 유지하여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또한, 도로가 얼 수 있으니 차에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은 항상 준비해 놓고 부동액 등 자동차 점검을 미리 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겨울철 한파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지켜야 할 안전 운전 수칙을 살펴봤다.

철저한 사고 대비와 예방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안전으로 이어진다. 잘 대비해안전한 겨울이 되시길 바란다.

Subscrip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onam Maeil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and regions, including phone numbers for Seoul, Gyeonggi, and other areas.